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이 되면서 거짓말처럼 무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하람이와 하빈이는 이제 학교에 적응을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하람이가 너무 학교 가기를 싫어해서 아침마다 울었는데 이제는 씩씩하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가는 걸 즐거워 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도 생기면 괜찮아 지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난달 중순부터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센터가 위치한 삼보롱동은 외관 상으로는 잘 정돈되어 있는 농촌지역이지만 아무래도 도시와는 격차가 큰 곳입니다. 현재는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린이 결연을 통한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략적인 지역조사는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일단 센터 주변의 가정들을 방문해서 대략적인 상황들을 살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도 많아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지혜롭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인근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분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시골 농촌지역 이다 보니 영어선생님이 마땅한 분이 없어서 1시간 30분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거리가 멀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셔서 7월부터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현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생각보다는 늦어 지고 있네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전에는 비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지도 몰라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에콰도르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기에는 우기 때보다는 날씨가 선선하고 하는데 저희가 적응이 되어서인지 건기가 시작되어서인지 아침 저녁으로는 한결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생활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사역도 시작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지네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길 매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두 가정이 함께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지혜롭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람이와 하빈이의 학교생활과 건강을 위해.
2. 지역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온정에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3. 방과후 학교에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4.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5. 차량구입을 위한 재정을 위해서.
6. 두 가정이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도록.





달란트시장



기초보건교육

